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야구사랑 | 야구인들이 기억하는 '인간 구본무'

"구단주 예우 필요없다"…외야석서 나홀로 관람

몸에 밴 소탈·배려…야구 애정 듬뿍
현장 중요시…"프런트는 간섭 말라"
외가에 LG 선수단 초청해 윷놀이도
1994 우승 후 롤렉스시계 경품 걸어

LG 트윈스는 1990년 KBO리그로 들어왔다. 그해 바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했다. 당시 구단주가 20일 별세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었다. 야구단은 럭키금성이었던 그룹 CI를 LG로 바꾸는 난해한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공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LG 트윈스의 '신바람 야구'가 파생시킨 젊고 친근한 이미지는 곧 LG그룹의 이미지였다. 구본무 구단주 체제에서 LG는 1990년에 이어 1994년 또 다시 한국시리즈 우승에 성공했다. 단기간에 신흥명문, 최고 인기구단 지위를 점했다. 야구인들은 투자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구본무 회장의 인간적 매력은 관료제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현장의 의욕을 북돋웠다.

●야구인들이 기억하는 인간 구본무

이광환 전 LG 감독, 이정훈 전 LG 코치는 구 회장의 별세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소탈함과 배려"라는 공통된 증언으로 구 회장을 추억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야구인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나신 분(이 전 코치)", "프런트 고위층에는 무서운 분, 그러나 현장 야구인에게는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전 감독)"이라고 떠올렸다. 구단주 구본무는 현장을 존중했다. 야구 모르는 프런트가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야구인들에게는 섬세한 관심으로 대했다. 1994년 우승 후, 구 회장은 롤렉스시계를 구단 금고에 넣었다. "LG의 다음 한국시리즈 MVP에게 이 시계를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시계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전 감독은 "LG 우승을 한 번 더 보시고 가셨어야 했는데…"라고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경남 진주 단목리 외갓집에 LG 선수단 전체를 초청해 윷놀이를 열기도 했다. LG 야구를 보고 싶어 어쩌다 잠실구장에 들를 때는 프런트에 알리지 않고 왔다. 외야석에서 홀로 야구를 봤다. 어떻게 알게 된 구단 직원이 부랴부랴 달려오면, '예우는 필요 없다'고 손짓으로 물리쳤다. 본부석에서 야구를 볼 때에도, 주위에 사람을 두지 않았다. 그에게 야구는 권력의 과시도 이미지메이킹 도구도 아니었다. 여느 사람들처럼 순수한 즐거움이었다.

●따뜻한 LG, 조건 없이 한국스포츠를 돕다

"LG家 회장님들의 성(姓)씨인 구(具)자는 사실 공 구(球)자"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스포츠 애호가였다. 구 회장은 야구 외에도 축구단 LG 치타스(현 FC서울)의 2대 구단주로서 마스코트 제작까지 챙겼다.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KBO 총재를 역임했다. 그리고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겸 LG 트윈스 현 구단주는 수년째 여자야구를 후원해오고 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여자야구는 구본준 부회장의 지원이 없었다면 벌써 고사했을 것이다. 이밖에도 LG는 체조의 양학선, 스켈레톤의 윤성빈 등 비인기종목 선수들을 조건을 구하지 않고 지원해왔다. 이들이 세계적인 선수라서 돕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에 감화된 손길이었다. LG를 '착한 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LG 의인상'도 비슷한 맥락이다. '어떻게 버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쓰는가'를 고민했던 구본무 회장의 행적은 '큰 부자'란 무엇인지를 새삼 되새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야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왼쪽 사진은 1990년 LG트윈스의 창단식에서 밝게 웃고 있는 구 회장(왼쪽)의 모습이다. 구 회장은 LG트윈스의 초대 구단주였다. 오른쪽 사진은 2001년 LG인화원에서 열린 사내행사에서 난타 연주를 하고 있는 구 회장(가운데). 스포츠동아DB

응원 無·근조 리본…잠실구장도 추모 한마음

만원관중이 들어찬 잠실구장은 고요했다. LG는 20일 한화와의 경기를 앞두고 비보를 접했다. 팀의 초대 구단주이자 LG 그룹 총수인 구본무 회장의 별세 소식이었다. 야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녔던 구 회장은 1990년 LG의 창단과 함께 구단주로서의 인연을 맺었고, 1990·1994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함께하며 2007년에는 동생 구본준 부회장에게 직책을 넘겨줬다.

잠실은 곧바로 고인을 떠나보낼 채비를 했다. LG는 매주 일요일 홈경기에 서울 유니폼을 입어왔지만, 이날은 기존의 줄무늬 홈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선수단의 왼팔에는 저마다 근조(謹弔)가 적힌 검정 리본이 부착됐다.

경기 시작 전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화 선수단도 동참했다. 경기 전 양 팀은 덕 아웃 앞에 도열했고, 국민의례 직후 'LG 트윈스 초대 구단주인 구본무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전광판 문구와 함께 고인과 작별했다.

관중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마음을 보탰다. 이날 잠실 경기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응원단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LG에서 먼저 스피커를 켜지 않고 경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한화 측에도 협조를 구했다. 이에 한화 역시 "당연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경기 내내 1·3루 응원단상은 비워져있었고, 팬들은 응원가 없이 육성만으로 선수들을 응원했다. 한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홈경기를 치른 프로축구 FC서울은 이을용 감독 대행이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았고, 구단 직원들도 검은색 양복에 검정 리본을 달아 추모에 동참했다.

LG 선수단은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전에 앞서 국민의례 직후 구 회장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수단은 근조리본을 달고 경기에 나섰다.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잠실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나눔 Lotto 6/45 807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8년 5월 19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6	10	18	25	34	35	33

1등 총 당첨금 17,063,636,254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등위 및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7	2,437,662,322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59	48,202,363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319	1,226,365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08,300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749,855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 – 0112 www.ngcc.go.kr

오는 7월30일 울릉도에서 113년만에 돈스코이호 각종유물 잔해등 전시 공개

신일그룹 150조원 보물선 돈스코이호 전세계 최초공개

신일골드코인 2018년 9/10월 말경 10,000원 국제거래소 상장예정

울릉도 바닷속에 150조 원의 보물을 싣고 침몰한 보물선 돈스코이호(6천200t급)의 유물과 잔해가 침몰 113년 만에 전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선체가 파손, 피할 수 없자 1905년 5월 29일 울릉도 저동항에 자침한 러시아 발틱함대의 유물과 잔해와 신일골드코인 백서가 오는 7월 30일 울릉도에서 전세계에 공개된다고 신일그룹이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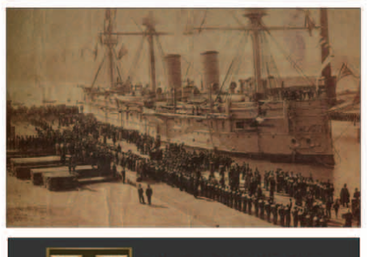
건설 · 해운기업인 신일그룹(회장 유지범)은 탐사를 통해 어떤 역사학자도 부정하기 힘든 보물선 돈스코이호라는 증거를 확인했고, 그동안 유럽컨소시엄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비공개 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전사한 돈스코이호 승조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5월 29일 울릉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다. 러시아는 당시 전사한 승조원들을 위로하는 추모제 개최를 꾸준히 요구해 왔고 현재는 돈스코이호가 인양되기를 기다리며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추모제가 끝난 후 레베데프 함장의 검과 유물, 152mm 함포 등 잔해부터 우선 바다 밖으로 인양한다고 했다. 본체는 중국 국영기업이자 세계적 인양업체가 추가로 참여해 돈스코이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자 통째로 인양된다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발굴되는 150조 금괴, 금화, 보물의 10%인 15조를 울릉도 돈스코이호 추모관, 영화세트장,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사업에 투자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협조해준 울릉도 주민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기부금도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경협사업 및 철도, 도로 기간산업에도 러시아측과 협의를 통해 10% 15조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돈스코이호 사업과 연계하여 유라시아 철도 및 개발사업을 통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한국에 연결하여 현재 유럽에 치우쳐 있는 가스 판매 국가를 아시아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물선 돈스코이호는 역사적 보물인 동시에 남북평화시대의 상징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는 2019년 상반기 신일골드코인 보유자에게 이익배당으로 지급된다.

인양되는 유물과 잔해는 산화를 방지하는 약품처리와 진공 보존된 특수 강화유리상자에 보관, 7월 30일 울릉도에서 전세계 최초로 공개되며 신일골드코인 백서도 같이 공개된다.
행사에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러시아 푸틴 대통령측 특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신일그룹은 설명했다.
본체 인양은 오는 9~10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세계 최고 인양업체인 중국 국영기업 알타이 셀비지가 합류, 돈스코이호를 원형 그대로 통째로 인양한다. 인양금액은 800억 원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다.

본체 인양과 함께 신일골드코인이 상장되면서 거래서비스를 시작하면 보물선 돈스코이호의 상징성과 이익배당의 기대감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큰 이목을 끌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인양을 이끄는 인양전문가 진교중 전 UDT 해난구조대장은 "이미 돈스코이호가 100%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인한 상태"라며 "탄소연대 측정법 등을 사용해 과학적으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유물 · 잔해와 함께 공개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전화 1522-5299**



150조원 보물선 돈스코이호
SHINIL GROUP
신일그룹

SHINIL GOLDCOIN